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명성 중국까지

아시아 관광 대상 '마케팅 사례상' 수상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명성이 한국을 넘어 중국에까지 떨쳤다. 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사)한중마케팅협회(KCMA)가 개최한 아시아 관광 마케팅 페스티벌(ATMF)에서 아시아 관광 대상(ATA Award) 마케팅 사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 사례상을 수상한 삼례문화예술촌은 역사성과 문화성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외관은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1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부는 미디어 아트, 책, 인쇄·출판, 디자인, 목공예 등 다양한 현대 장르를 담아낸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전국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문화 지평을 열었다

는 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 브랜드 창출로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 시켰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시아 관광 마케팅 페스티벌(ATMF)은 2015-2016 '한중 상호 방문의 해'와 2016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해 (사)한중마케팅 협회가 주최한 페스티벌로, 아시아 각국 및 지역 간의 관광 문화 교류 촉진, 아시아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 아시아 관광 마케팅 사례 발굴 및 장려로 아시아 관광 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특히 이번 수상은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의 추천과 협력으로 삼례 비비농부가 레스토랑과 함께 수상하게 됐다.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아시아 관광 대상(ATA Award) 마케팅 사례상을 수상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삼례문화예술촌을 방문객이 찾아오는 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등 해외



전 세계 매료시킨 목소리 마술사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 콘서트' 1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뉴욕브로드웨이를 열광시킨 환상적인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 콘서트가 17일 오후 7시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웃음과 감동의 하모니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아카펠라 5인조 비보컬이 오직 목소리를 통해 드럼과 기타, 브라스, 리듬 등의 소리를 아카펠라로 재창조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레퍼토리로 경이롭고 획기적인 다양한 악기 소리와 리듬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세계 최고의 목소리 마술사 아카펠라 그룹으로 특별초청 콘서트다.

공연의 특징은 한 사람의 소리가 악기가 되었다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름다운 화음, 그리고 신나는 리듬에 아카펠라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며, 마이클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레이디가가 등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팝부터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 그리고 특별히 한국 팬을 위해 비보컬이 직접 작곡한 "Korean Girl"이라는 곡 또한 기대가 된다.

한편 공연에는 도중 과정된 캐릭터로 재미난 분장에 위트 있는 멘트와 과하지 않는 몸 개그로 즐거움을 주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플라멩코와 탭댄스의 프로 솜씨를 보여줄 것이다. 관중 포인트로 우리가요 메들리에 열정적이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멋진 공연을 보여주며, 김제 시민 모두가 비보컬로부터 감동적이고 즐거운 에너지를 받아 초여름밤에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립국악원, 내일 궁중 제례의식 '경희루-연' 공연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조선왕실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경희루-연' 공연이 1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나라의 경사, 궁중향연, 국빈을 위한 연회, 왕후·제상들을 위한 춤을 비롯해 종묘·분묘·사직 등 제례의식에 사용되는 춤, 그리고 나라에 사용되었던 궁중정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궁중무용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춘앵무'가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다. 춘앵무는 버드나무 가지에서 맑게 지저귀는 피프리의 모습을 보고 만든 작품으로 궁중 대잔치 때 화문석 위에서 독무로 추는 춤이다.

이어지는 무대에는 당악정재에 속하는 춤인 '포구락'과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를 선보인다. 포구락은 포구문을 한 장소에 세워놓고 편을 갈라 노래하고 춤추며 차례로 공을 던지는데, 구멍에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고 못 넣으면

별로 얼굴에 점을 찍는 일종의 놀이에 의한 춤이다.

또한 용맹스러움과 우아한 한국적 미가 표출되는 '궁중검무'와 궁중 내례나 중요 연회에 차용의 기연을 쓰고 추던 탈춤 '처용무'도 관람 할 수 있다.

공연은 국왕과 왕비가 나라의 융성을 축원하고 왕업의 번영을 기원하는 '태평성대'로 마무리 된다.

이날 공연은 무용단 김미숙 지도위원이 기획·연출한 것으로 예술단의 레퍼토리 발굴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꾀한다. 공연과 함께 조세훈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의 해설도 곁들여 관람객의 궁중무용에 대한 이해 폭도 높일 예정이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연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는 290-6840.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경희루-연' 공연모습.

세계소리축제조직위, 코레일 전북본부와 협력 협약체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소리축제 박재천 집행위원장과 코레일 전북본부 장영철 본부장, 김남용 전주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리축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코레일 전북본부는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소리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

리축제는 철도 이용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소리축제와 연계한 철도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리축제'를 개최하는 등 양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소리축제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본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편리하게 방문하고, 전북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14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15일)

<p>▷쥐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성사될 수 있는 운. 6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72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84년생: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것을 구하면 오히려 재앙이 따르니 주의하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1년생: 구설이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아직은 기운이 미약한 상황이니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p>	<p>▷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처할 운이니 처음부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숨은 복병으로 인해 신경쓸 일이 생긴다.</p>	<p>▷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는 편안해지니 마음을 안정시키라.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75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p>
<p>▷용띠 52년생: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 64년생: 문서를 인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p>	<p>▷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p>	<p>▷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가라앉혀라.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양띠 55년생: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라.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 92년생: 소화가 게똥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섭생에 주의하라.</p>	<p>▷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원형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p>